

이엽·이박음 서울대 1단계 합격

포천고, 서울대 지역균형 2명 선발

포천고등학교(교장 정대운) 3학년 재학생인 이엽(사진), 이박음(사진) 학생이 2009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1단계에 합격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엽 학생은 포천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기숙사 면담관에서 생활하면서 성적우수자로 학업우수상을 받았고 장학금을 지원 받은 바 있으며 교우 관계도 원만하며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이박음 학생은 일동중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중 문과에서 1등을 차지하며 자기주도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성적우수 특대생 장

학금을 수상한 바 있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학생들은 앞으로 2차 면접과 논술시험, 3차 수능시험을 통해 서울대학교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

한편, 포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차 면접 서울대학교 수시 1단계에 합격한 것은 정대운 교장 부임이후 포천고등학교의 ▶학력향상지도 ▶진학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특기적성지도 등의 프로그램과 기숙사(면담관) 활용 및 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도 포천고등학교 대학 합격 현황은 서울 4년제 58명, 경



포천고등학교(교장 정대운) 3학년에 재학생인 이엽(사진 왼쪽), 이박음(사진) 학생이 2009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1단계에 합격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 4년제 47명, 지방 4년제 160명 등 265명이 4년제 대학에 입학했으며 3년제 대학은 서울 19명, 경

인 37명, 지방 3명 등 59명이 입학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터뷰 ... 정윤정 I love milk 영어스피치 대상 수상자

“中國語로 스피치 하고 싶어요”

장래희망은 우유로 이빨 치료하는 치과의사

추산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정윤정 학생이 제4회 I love milk 영어스피치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양은 10월19일 낙농진흥회와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경기인선대표로 참가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날 정 양은 '여자 최홍민'이라는 주제로 우유를 많이 먹고 커서 힘센 최홍민이가 되겠다는 내용으로 영어스피치를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학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국제중학교에 합격하는 것은 말아 놓은 일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대상을 차지한 정윤정 양은 "심사위원들이 대상을 주셔서 감사 드리고 지도해주신 선생님이 제일 고맙습니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추산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정윤정 학생이 제4회 I love milk 영어스피치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정 양은 본인의 영어스피치에 대해 제스처, 발음, 얼굴표정 등이 다른 연사들과는 차별화된 점

을 밝혔다.

이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스피치 분야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정 양은 "한글과 영어로

는 스피치를 했지만 한자로는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며 "중국어로 스피치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양은 장래희망에 대해 "우유로 사람들의 아픈 이빨을 치료하는 치과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양의 부친 정학송(54)씨에 따르면 정 양은 6세 때부터 인터넷 화상영어를 통해 원어민과 영어회화를 했으며 7세 때에는 미국에서 4개월 동안 언어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수영, 댄스스포츠, 피아노 등도 수준급이라고 말했다.

정 양은 1학년때부터 웅변을 시작했으며 웅변지도는 (사)대한웅변인협회 포천시지부 최정현 지부장이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가유기고 포천초등학교 스쿨존 수호천사 아저씨

"호르륵 호르륵, 어서 와 천천히..." 등교 길에 우리 학교 가까이 가면 들려오는 소리이다. 경찰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불며 교통지도를 해 주셔서 경찰아저씨인 줄 알았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늘 나와 계시는 아저씨이다 보니, 앞으로 다가 올 겨울이 걱정되어, 어린이들의 등교가 끝난 후에 아저씨들을 만나 보았다. 우리학교의 스쿨존을 녹색어머니와 함께 지켜주시는 아저씨들은, 영입용 버스나 택시 그리고 화물차의 운전자를 이루어진 모범 운전자 회원이라고 한다. 오늘 만나 본 아저씨는 화물차 운전자인 박동성 아저씨이다. 7~8명의 아저씨들이 우리학교 스쿨존에 시간이 나는 대로 나오셔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인 7시30분부터 8시35분까지 스쿨존을 지키신다고 하셨다. 스쿨존의 천사 아저씨들 중에서 특히 박동성 아저씨는

등교 길이면 늘 밝게 되는 얼굴이다. 감사한 마음에 아저씨께다가 "아저씨, 자녀들이 우리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하고 여쭙었다. "아니, 우리 애들은 다 컸어." 하시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다 보면 등교길에 사고가 생기기도 하는데, 포천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내가 4년 넘게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 한 번도 일어남 적이 없어" 하셨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학교나 기관에서 감사장 받지 않으셨나요?" 하고 여쭙었다. "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교통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등교길에 밝게 웃으며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무사히 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무척 기쁘다. 하루 하루 교통지도를 마치고 나면 '오늘도 어린이들이 무사히 등

교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고 말이다. 그런데 학교, 도로교통공단, 시의회, 경찰서 등에서 봉사한다고 표창장을 주니, 쑥스럽기도 하고 빠지지 않고 더욱더 스쿨존을 지켜왔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라고 하셨다. 이날 스쿨존에서 교통지도를 하신 녹색어머니께서는 "초등학생들은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수신호도 잘 따르는데, 중학생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어린이들이 많은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썰렁 달려서 사고 날까봐 걱정이예요."하셨다. 우리학교 스쿨존의 수호천사인 박동성 아저씨, 그리고 모범운전자 아저씨, 녹색어머니들, 우리들의 등교 길을 무사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연 학생기자 포천초등학교 5년

엄혜원 금메달, 이주희 은메달 차지

포천고, 제89회 전국체전 경기도대표로 참가



포천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이 제89회 전국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포천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이 제89회 전국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포

천고등학교 함세범, 엄혜원, 최민정, 이주희 선수가 참가했다. 이번대회에서 엄혜원 선수는 혼합복식에 광명북고 김기정 선수와 한 조가 되어 1회전에서 강원도 대표를 2:0, 2회전에서 경상남도

대표를 2:0, 준결승전에서 충청남도 대표를 2:0으로 승리하고 결승전에서 전라남도 대표를 2:0으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개인단식에 참가한 이주희 선수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포천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은 올해 2007년 독일주니어배 드민턴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개인단식 1위, 여자복식 2위, 혼합복식 3위를 차지했으며 제16회 삼성전기배 주니어단식 최강전에서는 여고 부 1위 우승(엄혜원), 3위(이주희),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2008 전국 불철중고배드민턴리그전에서는 단체전 준우승, 개인단식 3위(엄혜원), 제50회 전국여름철총합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여자복식 우승(엄혜원, 이주희), 혼합복식 우승(엄혜원, 이동근), 준우승(이주희, 김기정), 제33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에서는 단체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축제

이동중학교 제8회 마당바위제 개최

이동중학교(교장 이철건)는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제8회 마당바위제를 개최해 학생들이 꿈을 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축제에 앞서 이철건 이동중학교 교장은 "교정에 가을빛이 완연하고 하늘은 높고 푸르른 이

희망찬 계절에 아이들이 꿈을 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미숙한 부분은 미소로 응원하시고 잘된 부분은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서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마당, 장기자랑, 열린마당, 체육마당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신영필 이동중학교 운영위원장과 유선숙 어머니회장 등 학부모와 장기문 영북중학교 교장, 엄대용 일동고등학교 교장, 이재춘 일동중학교 교장 등이 참석해 축제를 축하했다.

특히 축하공연으로 인근 학교인 노곡초등학교 리코더, 도평초등학교 사물놀이, 일동고등학교 댄스, 락밴드 공연무대를 마련하기도 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6. < 메일 > : (2)
*실례 # 2
*내용 : 이 달초, 해외 출장중 '파트너' 에게서 성의 있는 상담과 배풀어 준 접대에 감사한다는 이메일 일. 귀사제품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갖고 온 샘플들은 당시의 판매에 적용하는 방법과 시장성을 신중히 검토중인. 전시장과 공장시찰중 예기한 당시의 패널 샘플은 곧 송부할 예정이며, 부인께도 집에서 배풀어 준 만찬과 우정에 감사의 전례 주십시오.
November 20, 2006 Korea
Dear Andrey,
I'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for your hospitalities you have rendered to me and my party during stay in your country early this month.
Mr.Shin and I were very impressed on your products and we are now seriously reviewing your samples how much applicable on our new panel systems and the marketability.
As we have discussed at you exhibition and tour of the factory, our panel samples are posing to you in due course.
Please convey our warm thanks to your wife for the beautiful porkchop and friendship in the night.
Hope to hear from you soon.
Best regards,
Jack
C/대/Daeho Korea
문의: 윤 중 성 (017-723-4977)colyoon@nate.com

함께 공부해요

계고(稽古) 편 ⑦

曾子曰以能으로 問於不能하며 以多로 問於寡하며 有若無하며 實若虛하며 犯而不校者 昔子에 吾友嘗從事於斯矣러니라.
(犯以不校) 범은 침범하는 것

증자가 말하기를 "유능하면서 유능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으면 식견이 많으면서 식견이 적은 사람에게 물으면 식견이 적은 사람에 물으면 식견이 적은 것 같이 하며 충실하면서도 비어 있는 것 같이 하며 겸실하면서도 비어 있는 것 같이 하며 남이 나를 침범해도 그것을 교계(敎計)용 고그를 따지지 않음을 말함) 하지 않는 것 옛날에 우리 벗들이 이일에 종사했다" 하였다

"사람이 학문을 처서(處世)함에 있어, 조금 능력이 있고 식견이 있다고 하여 자만하는 것은 금물이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남에게 물고 배워서 충실을 期(기)해야 한다. 내 비록 남에게 비리를 침범을 당했다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다투지 않는 것이 아량이며 교양이다."
(011-354-6485)

양 주 성
본지 자원위원회의고

BEST 보육프로그램 16 장애통합보육프로그램

‘또래들과 아름다운 우정을 쌓도록 질 높고 구조화된 프로그램 제공해야’

통합보육은 장애를 지닌 유아들이 장애를 지니지 않은 또래들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 아동을 통합했을 때 장애 유아와 일반유아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요즘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통합보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장애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다.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일과운영은 다양한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학습의 기회로 활용되는데 예를 들면, 등원, 자유선택활동, 대그룹과 소그룹 활동, 점심식사, 낮잠, 실외활동, 간식시간 등으로 이어지는 생활중심의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에게 다 양하고 많은 통합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하고 기본생활습관과 신변처리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장애아 통합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응기간프로그램의 운영, 수정주간계획안을 작성하여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수정계획안을 계획한다. 특별활동은 또래아동과 함께 체육, 발레, 유리드미스, 영어, 과학, 레고다터, 다도 등의 특별활동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경험을 준다. 또한 소그룹 활동을 다양한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우며, 지역사회적응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지역사회에 있어 필요한

기능적 기술들을 지도한다. 가정과의 연계에 있어서는 아동의 생활에 대해 전화상담, 면담이나 원아수첩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교사를 위한 적응기간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입소 전에는 부모와 함께 하는 적응활동수업과 각 시설 돌아보기, 놀이감 탐색 및 활동에 참여하며, 부모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발달 내역서를 비롯한 부모요구조사서, 아동정보 내역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며, 입소 초에는 유아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활동에 참여하기,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 친구들 인식하기, 어린이집 시설물의 사용법 알기, 개인사물함, 신발장에 소지품 정리하기, 교실 수업활동에 참여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유아를 지원하며, 부모에게는 지속적으로 의사소통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 입소소환할 후에는 교사는 아동의 현행발달수준을 평가하고 아동의 개별화 된 교육활동을 계획한다. 장애유아를 통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이 커야 하며, 장애아동의 욕구를 파악하여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과의 통합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보인다. 유아들과의 교사의 비율이 아직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도 이야기하듯이 장애아의 부모가 되는 것, 장애아로 살아가는 것 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장애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일 역시 선택의 문제일 수가 없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협력하여 좋은 통합환경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통합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몇 년 전 발표회 때 몸이 불편한 친구를 배려하며 극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 감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 아이들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 친구일 뿐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편견은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다. 어릴 적 서로 도우며,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장애유아들도 또래들과 우정을 형성할 기회를 갖는 좋은 시간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어린이집 현장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011-9717-5206)

김 경 선
권인어린이집 원장
kksun64@nmail.net